



홍수 동안에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홍수 내용을 다룰 때면 종종 받는 질문이다. 질문인 즉 오늘날에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로 나뉘는데, 홍수 동안에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격변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모두 섞였다면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나 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홍수 동안에 물고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홍수 동안에 전멸한 자들은 사람과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이었다(창 7:21). 그리고 방주에 탔던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온 땅에 퍼졌고(창 9:19), 오늘날의 육지 동물들도 함께 방주에 탑승해서 보존된 것

들이다(창 7:3). 성경에 물고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홍수 심판은 물고기의 씨를 마르게 하지는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즉 많은 물고기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모두 죽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물고기가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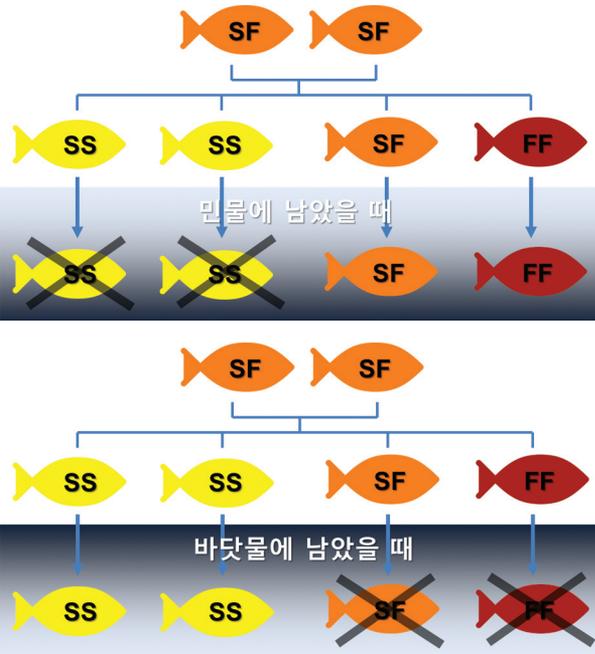
예를 들어 1980년에 화산 폭발한 세인트 헬렌산(St. Helen)의 경우 화산재가 근처에 있는 스피릿(Spirit) 호수로 밀려왔을 때, 알칼리도(염분 등이 용해된 농도)가 1500배, 수온이 4°C에서 22.4°C로, 혼탁도가 33배가 증가했다. 물론 이때 호수의 많은 물고기가 죽었지만 10년 안에 모두 회복되었다. 여기서 홍수 심판이 스피릿 호수와 같이 고립된 곳이 아니라 전지구가 물로 덮였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전지구가 물로 덮였다고 가정할 때, 지금의 바닷물로 환산하면 당시 물의 평균 깊이는 평균 2.6km에 달한다. 이는 당시 지구를 덮었던 물 전체가 동일하게 수온이 높아지고 염도가 높게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물고기가 완전히 멸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보자. 먼저 오늘날 많은 물고기들은 민물과 바닷물 양쪽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면 연어, 송어, 전어, 은어, 농어, 철갑상어, 톱상어, 장어 등은 민물과 바닷물 양쪽을 오가며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다. 대부분은 민물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성장하지만, 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나 호수나 냇가에서 성장한다. 불가사리는 정상보다 16-18%, 따개비는 10% 낮은 염도에서도 견딜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해양동물들은 홍수 시기에 염도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훨씬 덜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날 어떤 물고기들은 민물에서만 살 수 있고, 반면에 바닷물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삼투현상 때문이다. 삼투현상이란 염분의 농도 차이 때문에 물이 세포막 등을 통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체내의 염도보다 체외의 염도가 너무 높으면 세포막 내부의 물이 체외로 빠져나가 탈수현상으로 죽게 된다. 반대로 체내의 염도보다 체외의 염도가 너무 낮으면 세포막 내부로 물이 밀고 들어가 압력 때문에 세포가 파괴된다. 각 물고기들은 삼투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되면 유지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 물고기들은 주위 환경(민물이나 바닷물)에 따라 염도의 변화를 주어야 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 자신의 염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신체의 염도가 너무 낮거나 높아도 살 수 없다. 이 염도는 신장과 아가미가 조절한다. 만

약 민물고기가 너무 많은 물을 얻어 염도가 낮아졌다면, 신장은 염도를 높이기 위해 오줌 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양의 물을 내보내서 체내 염도를 유지시킨다. 반면 바닷물고기들은 주위에서 높은 염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줌을 이용하여 염분을 방출하며 염도를 낮춘다. 아가미도 소금을 배출하는 기능을 통해 염도를 조절해 준다. 종합하자면, 물고기는 삼투현상과 염도의 적절한 유지를 통해 살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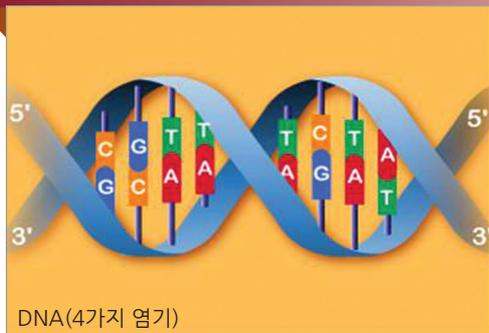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는 물고기들은 이를 조절하는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톱상어는 바닷물에서 민물로 이동할 때 소변을 20배 증가시키므로 혈중 염도를 1/3로 감소시킨다.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의 구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홍수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 따른 자연선택과정이다. 동일한 종류의 물고기라 할지라도, 홍수후기에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민물에 고립되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바닷물로 내려갔을 것이다. 그리고 민물에 고립된 것 가운데 염분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물고기들은 살아남았기 유리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적응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살아남은 것들끼리 서로 교배를 하여 닳은 것들을 낳았을 경우 이들은 민물에서 살기에 적합한 것들만 낳았을 것이다. 이들은 이미 민물에서 살기 적합한 것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바닷물에서는 살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민물고기가 된 것이다. 또한 바다에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옆의 그림이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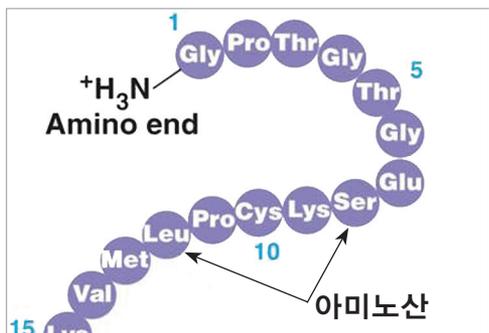
성경에서는 홍수 동안에 물고기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며, 지금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노아홍수는 바다의 생물들이 모두 죽는 환경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른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DNA(4가지 염기)

DNA가 먼저, 단백질이 먼저?



단백질(20가지 아미노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실제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세상 과학자들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그러나 이 질문보다도 한 차원이 더 높은 수수께끼가 있다. DNA가 먼저인가 단백질이 먼저인가?

단백질은 생명체의 거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사를 빠르게 해 주는 효소, DNA 복제, 외부 자극들에 대한 반응, 물질 수송, 세포 구조물 등의 세포의 거의 모든 골격과 활동을 담당한다. 따라서 단백질은 물을 제외한 세포 무게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생물 종류에 따라서 각 세포에는 수천 혹은 수만 가지의 단백질이 존재한다. 각 단백질은 20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마치 실에 펜 구슬처럼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위 그림). 보통 50 개 이하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라 부르고 그 이상을 단백질(protein)이라 한다. 그런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순서는 DNA의 정보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DNA가 먼저이고 단백질이 나중에일까?

문제는 DNA의 정보에 맞춰 단백질을 생산하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DNA의 정보를 읽는 일, 이 정보를 RNA로 복사해 내는 일, 이 복사된 정보를 읽고 원래 DNA가 지시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도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런 기능을 가진 단백질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DNA는 아무 의미도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단백질이 먼저 있어야 DNA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DNA보다 단백질이 먼저 존재했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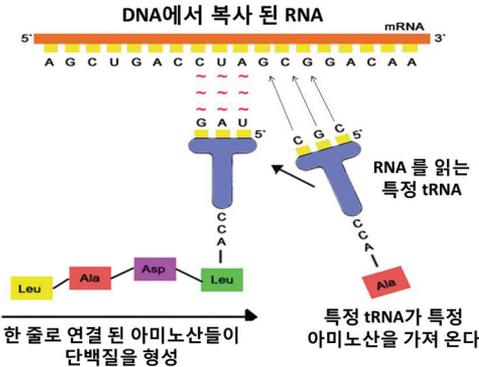
DNA와 단백질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맺어지게 되었을까? 사실 DNA와 단백질은 구조나 성분면에서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물질들이다. 생명체에서는 3개의DNA(염기)가 하

DNA (RNA) 64 가지 코드

UUU } Phe UUC } UUA } UUG }	UCU } UCC } UCA } UCG }	UAU } Tyr UAC } UAA Stop UAG Stop	UGU } Cys UGC } UGA Trp UGG Trp
CUU } CUC } CUA } CUG }	CCU } CCC } CCA } CCG }	CAU } His CAC } CAA } CAG }	CGU } CGC } CGA } CGG }
AUU } Ile AUC } AUA } AUG }	ACU } ACC } ACA } ACG }	AAU } Asn AAC } AAA } AAG }	AGU } Ser AGC } AGA Stop AGG Stop
GUU } GUC } GUA } GUG }	GCU } GCC } GCA } GCG }	GAU } GAC } GAA } GAG }	GGU } GGC } GGA } GGG }

아미노산 20 가지

나의 의미를 가진 코드(codon)가 된다. DNA염기는 4가지가 있으므로 3개의 염기로 구성 된 64가지의 의미 있는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표). 이 64 가지 각각의 코드에는 한 가지의 아미노산과 관계가 지어져 있다. DNA 코드는 64 가지인데 아미노산은 20 가지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해 복수의 DNA 코드가 그림의 표처럼 배정 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DNA 코드와 아미노산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중간에 tRNA(transfer RNA)라는 것이 DNA와 아미노산을 중개하여야 DNA의 의미가 실제화 되게 된다. tRNA에 끝에는 특정 아미노산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중간에는 RNA(결국은 DNA)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루프가 있기 때문이다(아래 그림). 이런 DNA - tRNA - 아미노산의 연쇄적인 일련의 관계들이 우연히 생겨 날 수 있을까?



도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럴듯한 껀변이다. 원숭이가 무작위로 타이핑을 하여 우연히 성경 책을 썼다 해도 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원숭이에게는 아무 정보도 아닌 것이다. 이미 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존재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체의 DNA 정보가 저절로 생겨 난다는 진화론적인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생명체 속의 DNA와 단백질들은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 1:11, 20, 24).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탐사

EM 창조과학탐사

지난 6, 7월에 창조과학탐사가 연이어 출발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목할 점은 EM 2세들의 탐사가 여러 번 들어있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성은장로교회(담임목사 홍창우, 6/16-20), 주님의 빛 교회(담임목사 주혁로, 6/23-25)에서는 그랜드캐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선욱 박사님께서 인도해주셨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 7/4-6)는 KM과 EM이 거의 100명에 달하는 인원이 버스 두 대를 가득 채운 채로 출발했습니다. 빙하시대를 주제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한국어로, 다른 한쪽에서는 통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통역은 ANC 온누리교회의 Mike Lee 집사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만을 주입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진화론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보이는 증거들이 성경 역사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인식시키는 귀중한 기간이었습니다. 보내주신 교회와 부모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2세들을 위한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이 함께 했던 창조과학탐사

몽고메리 늘푸른 장로교회(담임목사 최규태, 6/30-7/3)와 뉴저지 초대교회(담임목사 한규삼, 7/7-10)







햇불트리니티 CEO



몽고메리 늘푸른장로교회



는 가족이 함께 하는 창조과학탐사였습니다. 대부분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가족 전체가 성경의 증거들과 사실됨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사실됨을 함께 확인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실제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가장 부러움을 받는 분들이 가족 전체가 오셨을 때입니다. 두 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조과학탐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오렌지 한인교회(담임목사 김운진, 6/12-14)에서 빙하시대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어른들이셨는데,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느끼셨습니다.

햇불트리니티 CEO

햇불트리니티 CEO스쿨(6/20-27)에서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했습니다. 8일간 그랜드캐년뿐 아니라 요세미티 지역까지 미서부 전지역을 이동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성경의 확신뿐 아니라, 주위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도록 추천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카고 지역 중부 창조과학학교

제 16기 중부 창조과학학교가 시카고 그레이스교회(담임목사: 원중훈)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주 동안이며 매 주 월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이동용 박사(630-400-6114)



오렌지한인교회 빙하시대



뉴저지초대교회

ANC 온누리교회 창조과학집중세미나

지난 해에 이어 세 번째로 9월 13일(토), 20일(토) 2일간 오전 9:00부터 오후 4:30까지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가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정명호 전도사(818-388-4954)/이중재 집사(323-360-3204)

제 6기 ITCM 훈련생 모집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 14일까지 8주간 진행될 제 6기 ITCM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에 창조과학에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본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창조과학 지식의 전달을

통해 성경적 창조론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증거들을 배우도록 합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신론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지식과 증거들을 습득하도록 성경-과학-열매 이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지식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경공부, 창조과학 도서 읽기, 창조과학 탐사여행, 세미나 등을 통해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훈련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조과학선교회 웹사이트 “훈련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가자들 중에 창조과학 전문 사역자로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와 추천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수나무 나이테가

성경의 연대를 부정하나?



9,500년 되었다는 나무

위키피디아 웹사이트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1] 이 목록에 있는 나무의 나이는 주로 나무 단면의 원형 테의 숫자 또는 탄소동위원소 방법으로 결정된 나이들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오래된 나무들은 썩어져 없어지거나 손상 부위가 많고 또 나무의 중심부가 없어져서 나이테를 직접 셀 수 없다. 때문에 그 나무의 크기와 성장속도를 추정하여 결정한 나이들이다. 그 결과로 현재 생존하는 가장 장수하는 나무로 미서부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에서 발견되는 브리스틀 콘 파인(Great Basin Bristlecone Pine) 나무들로 5000년 이상 된 나이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목록은 개체 (개별적인) 나무들 보다 근거지를 이루는 나무들이 더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Tasmania섬 리드산(Mount Read)에 약 2.5 에이커를 덮고 있는 Huon Pine 나무들의 근거지는 인근 호수의 퇴적층에서 수집된 꽃가루(Pollen)로부터 얻은 DNA 샘플 연구로부터 약 10,000년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근거지에 있는 개별 나무들의 나무테 견본들은 약 4000년 이하

의 나이를 보여준다고 기록하고 있다.^[2]

나무 줄기를 잘라서 단면을 보면 소위 나이테라고 부르는 원형 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테들을 나무 외피에서 중심으로 계수하여 그 숫자로 나무가 살아있었던 년수를 추측한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정확해 보인다. 직접적인 관찰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화 과학자들은 몇몇 오래된 장수 나무들이 노아홍수 이후의 연수(약 4300년) 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테를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에 빌 나이(Bill Nye)와 켄햄(Ken Ham)과의 창조-진화 논쟁에서도 진화론자 빌 나이는 이 나이테 연구자료를 들어서 성경적 연대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하였다.^[3] 그러면 정말 그가 주장하

는 것처럼 나무테들이 성경의 연대를 반증하는가?

나무의 줄기 단면에 행방불명되거나 없어진 테들이 없고 또 혹 가짜로 생기는 테들이 없다면 원형 테들의 숫자로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었는지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나무의 원형 테는 매년 오직 하나만 만들어 지는 것으로 가정 하에서 말이다. 과학자들은 보다 정확한 나이를 추정하려고 서로 인근의 유사한 나무들의 나무테를 비교분석 한다. 이 크로스데이팅 방법은 나무테의 변이 패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나무테 연구의 기본이다.

보통 오래된 나무일수록 어떤 테들은 아주 희미하여 불확실하고 중심부는 썩어 없어져버린다. 또한 때때로 동일한 해에 하나 이상의 나이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이테의 성장은 일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어떤 열대 수목들은 수 개월 동안에도 탄소 화물의 불균형을 보이는 다수의 성장테들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실제로 나무의 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나이테를 통하여 어느 해 어느 때 기후 변화의 특징을 추적하는데 매우 어렵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이 성장테들이 한 해 동안 기후변화의 역사를 보여줄수 있을까? 어떤 온대 지역의 나무들(temperate trees)은 그 성장이 두번 또는 세번 주기로 여러 나무테를 만들고 휴면상태의 간격에 따라 분리되기도 한다. 이런 형태의 휴면상태는 수일 또는 몇 주간 지속되는 것으로 하나의 나무가 수주 동안 다수의 나무테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인다.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나무테가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추운 겨울 또는 건조기 때문으로 본다. 고해능 목재특성치변이 연구에 따르면 목재의 밀도 증가가 매우 높아지는 강한 건조기의 스트레스가 가짜 나이테를 만든다고 한다. 이 현상은 1996년 6월 노르웨이에서 한 번의 심한 건조기가 가짜 나이테를 만들었고 심한 가뭄에 나무의 밀도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나무 테들이 가짜 나이테들이다.^[2]

결론적으로 기후와 또 다른 요인들이 같은 해 다수의 나무 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탄소14 동위원소를 비롯한 모든 연대 측정 방법도 가정 없이 나이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무의 나이테가 성경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의 역사를 가정하면 설득력 있게 나무의 나이테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 노아홍수 직후와 그 후에 이어진 빙하시대, 이 역사를 이해한다면 노아홍수 후 자라기 시작한 나무들이 점차 심해지는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동일한 해에 다수의 테들이 만들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1] Wikipedia.com "List of oldest trees"

[2] ACT&FACTS, Vol. 43 NO.5, Page 21, May 2014

[3] Creation Truth Newsletter 2014 3월호 "창조와 진화논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토성 자기장 오로라:

창조의 증거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사(NASA)에서 제작한 영상인 “Walking On Air”를 보았다. 이 영상에는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수집한 북극과 남극의 오로라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 오로라들은 지구 극지방 위에 넓게 펼쳐져 있으며 소용돌이 치는 녹색의 금속 연기처럼 보인다. 새로 관찰된 여러 증거들도 토성의 자기장도 토성 자신의 오로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놀라운 우주의 장관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토성의 자기장이 처음에 생겨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도록 한다.

토성이 비록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허블 망원경을 통해 토성의 오로라의 특징을 상세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 토성의 오로라는 자외선의 영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데, 태양이 방출한 대전입자가 자기장의 한 부분인 자기장 꼬리와 충돌하고 행성의 반류(후방에 생기는 흐름)에서 흐르는 대전 기체(전기성을 갖게 된 기체)에 혼합되며 형성된다.

레스터 대학 (Leicester University) 소식지는 함께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토성 오로라의 사진들을 지질학 저널인 GRL (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출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새로이 포착된 토성 사진들은 토성 오로라의 원인이 자기장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smoking gun)를 보여준다고 했다.

자기장은 구리 코일을 통해 전류가 이동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마치 전기가 닳듯이 빠르게 사라지게 된다. 자석과 같은 특정한 금속은 자기장을 짧은 기간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하게 된다. 토성의 것은 어떻게?

이 모델은 최근 측정된 수성과 천왕성과 해왕성의 자기장의 양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또한, 토성의 현재 자기장의 강도도 정확하게 설명한다. 토성의 수천 년 된 자기장으로부터 뺀어 나온 자기장 꼬리만이 오로라의 장관을 가장 잘 설명한다.

토성의 자기장은 과거 수천 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붕괴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토성이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면 그 자기장은 과거 언젠가 오랫동안 붕괴하지 않은 채로 존재했어야만 한다.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토성을 포함한 모든 행성의 자기장에 대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자기장 다이너모 이론 (dynamo theories: 회전과 대류, 전기의 전도가 가능한 유체를 통해 자기장이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아무도 아직 수십억 년 동안 유지될 정도의 자기장의 강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다.

천문학자 러셀 험프리 (Russell Humphreys)는 최근 국제창조과학학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onism)에서 다이너모 이론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실패해왔음을 설명했다. 그는 논문에 “다이너모에 대한 거의 모든 이론이 죽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다이너모 이론들은 행성의 자기장을 설명하기 위해 행성의 내부 깊은 곳에 소용돌이 형태의 금속이 풍부한 액체 물질이 등글게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구리 코일 자기장 유도기처럼 이 금속 액체 물질이 전류를 유도할 수 있고 따라서 자기장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류 다이너모 이론 (Turbulent dynamo theory)”이 이러한 여러 다이너모 이론 중에 가장 좋은 후보처럼 보인다. 그러나 험프리 박사는 수백만 년동안 지속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공식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상수들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밝혔다.

1984년에 험프리 박사는 다른 자기장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하나님께서 창조 주간 동안 물 분자를 나란하게 배열하셨을 것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 모델은 최근 측정된 수성과 천왕성과 해왕성의 자기장의 양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또한, 토성의 현재 자기장의 강도도 정확하게 설명한다. 토성의 수천 년 된 자기장으로부터 뺀어 나온 자기장 꼬리만이 오로라의 장관을 가장 잘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토성의 자기장은 오래전이 아니라 최근에 창조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Brian Thomas, M.S., ICR 작가

번역: 조희천 (지구물리학 박사과정)

창조과학 탐사

7/18-22, 2013

간증

풀수 없는 의심으로 인해 서서히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던 이 시점에 창조과학 탐사에 참가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효원 <이천 영광 교회>

너무 기쁘고 행복했으며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데리고 미국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석주 <예수 비전 교회>

이름이 성경인데 초등학교 때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떠났었어요. ... 이번에 진짜 창조론, 하나님이 실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 장성경 <소망 세광 교회>

교회 가는 것이 억지로 가는 것 같아 항상 귀찮고 의무적이었습니다. ... 이렇게 여러 확실한 증거와 ...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 채지민 <안산 동산교회>

정말 창조하신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모든 의심이 떠나게 되었다. - 박보경 <부천 산성교회>

항상 성경 내용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는데 확신이 생겼다. - 김예영 <기뻐하는교회>

제가 상식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다 진화론이었고, 그 정확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 도지혜 <안산 동산교회>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았는데 ...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정호진 <부천삼광교회>

진화론의 패러다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권혜지 <크리스찬교회>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저에게 더 확신을 갖게 해준 기간 - 정예지 <안산 동산교회>

확실히 알게 되었다. 창조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 장재현 <안산 제일교회>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 전준태 <안산 대만교회>

성경은 사실 그 자체, 진화론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 오한결 <안산 동산교회>

우선 저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김소희

그냥 동산고 다니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 최화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 김한얼



패러다임이 깨지고 창조과학이라는 분야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박성호

(예전엔) 성경에 대한 의심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 오승준

성경이 궁금해졌습니다. - 권영재

반 친구들에게 진화론이 다 '뽕 of 뽕'임을 널리 알리고 창조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돕고 싶습니다. - 황승훈

다시 믿음이 흔들렸고 ...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태양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성경은 더더욱 믿지 않았습니다. ... 창조론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 이재원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창조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김동현

진화론이라는 거대한 사기극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권보성

성경은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지냈습니다. ... 이번 기회를 통해 성경
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뻐합니다. - 전중현

아무 종교도 없는 학생이었지만 ... 과거는 증인을 만나야 하고 그 증인은 '성경'입니다. - 신현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저의 꿈을 정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 윤민진

진화론을 믿고 인류는 진화했다고 생각했다. ... 탐사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다. - 김병목

진화론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였었습니다. ... 진정한 사실에 대해 알아(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강장목

진화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 창조론에 확신을 갖고 성경에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황준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깨달음을 얻고 가는 것 같다. - 이조은 <안산 동산교회>

창조론의 실재하는 증거들과 증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며 하나님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대해 알게 되고, 신앙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 정수진 <안산 동산교회>

2014년

- 8/4-10 창조과학탐사 (일산 성산교회), 이재만
- 8/6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최우성), CA
- 8/8-16 창조과학 세미나 (이동용), 과테말라
- 8/12-15 창조과학탐사 (베들레헴교회), 이재만
- 8/13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최우성), CA
- 8/16-21 창조과학탐사 (대구 화원교회), 이재만
- 8/25-28 창조과학탐사 (벤쿠버 성산교회), 이재만
- 8/25-12/10 Grace Mission Univ. (최우성), CA
- 8/27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최우성), CA

- 9/1-3 창조과학탐사 (얼바인 온누리), 이재만
- 9/3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최우성), CA
- 9/4-10 창조과학탐사 (안산 동산교회), 이재만
- 9/7 주님의 영광교회 (최우성), CA
- 9/8-11/10 중부창조과학학교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 IL
- 9/13 ANC 온누리교회 집중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 9/14 주님의 영광교회 (최우성), CA
- 9/20 ANC 온누리교회 집중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 9/21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 9/22-27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이재만
- 9/28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 9/29-10/1 창조과학탐사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 9/29-10/1 창조과학탐사 (나성순복음 아프리카 선교사), 최우성

- 10/2-9 창조과학탐사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